

너를 사랑

MARSA KOREA
MAGAZINE

2020 03
제 15호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언제나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의 바다 환경을 지켜나갑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주식회사 코르웰
KORWELL CORPORATION

東一造船株式會社
DONGIL SHIPYARD CO., LTD.

(주) 코마린기자재
KOMARINE MATERIALS CO., LTD.

會長 金 成 泰

船舶修理 • 船舶新造 • 海上貨物運送 • 海運代理店 • 船舶給油 • 水産物輸出入
Shiprepairing Shipbuilding Marine Transportation Shipping Agent Bunker Supply Marine Products Export/Im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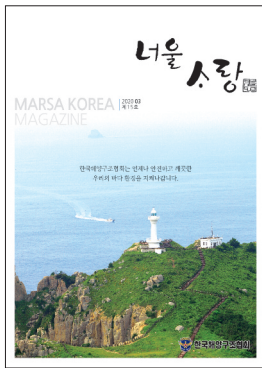
TEL.(051)200-1111 / FAX. (051)200-1188 / E-mail. kwagent@korwell.co.kr / http://www.korwell.co.kr
TEL.(051)200-1211 / FAX. (051)200-1288 / E-mail. dongil@disyard.co.kr



한국해양구조협회

MARSА KOREA MAGAZINE

2020 03
제15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김성태
발행일 2020년 03월 26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714-3695
FAX. 051)714-3095
기획·편집 김다현
디자인·인쇄 세종출판사
TEL. 051)463-5898

너를 사랑

표지 제자 「너를 사랑」

바람에 일어나는 물결을 의미하는 '너울'과 봉사정신의 밑바탕인 '사랑'의 합성어로 해양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담겨져 있다.

CONTENTS

Special Theme

- 04 총재 취임사 김성태 신임 총재 취임사
- 07 해양경찰청장 취임사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취임사

MARSА News

- 10 본부 뉴스
 - 1) 제17차 이사회 및 2020년도 정기총회 서면 대체
 - 2) 해양경찰청, 민간해양구조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 3) 『2020년 강사워크숍』 개최
- 13 지부·지역대 뉴스
 - 1) 통영구조대장 이·취임식
 - 2) 전남동부지부, NDL KOREA와 업무협약 체결
 - 3) 충청남부지부 회원구조대, 사무실 개소
 - 4) 전국 구조·구난 소식
 - 5) 경남서부지부 통영시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성금 2백만원 전달
 - 6) 통영구조대, 설 맞아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떡국나눔행사

MARSА Story

- 20 지부이야기 '해양관광도시'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이야기 전남동부지부
- 23 안전을 부탁海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나선 구조대원들
- 26 환경을 부탁海 환경보호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 '업사이클링'

MARSА Info

- 28 국내뉴스
 - 1) 해수부, 봄철 맞아 대대적인 해양교통 안전점검 실시
 - 2)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근해어선 줄인다
 - 3) 이제는 바다에서도 '너의 목소리가 보여'
 - 4) 수상레저안전법, 2월 28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5) 해양경찰청, 항포구 차량 추락사고 예방 대책 추진

MARSА Notice

- 33 협회교육안내
 - 1) 2020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
 - 2) 2020년 『인명구조요원』 교육
 - 3) 2020년 『재난안전지도사』,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 36 협회후원안내

총재 취임사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김성태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정기총회에서 제5대 총재로 선임된 김성태 수석부총재입니다.

먼저 전대미문의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2020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회원 여러분 모두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우리협회의 제5대 총재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제가 50년 가까이 해양인으로 살아오면서 체득한 지식과 지난 7년 여 간 수석부총재로서의 경험을 살려 우리협회의 발전과 해양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신정택 총재님께서서는 세월호의 와중에 기업인에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악의적인 언론보도, 검찰수사, 국회 국정조사, 세월호특조위 조사를 모두 묵묵히 감내해 내시면서 우리협회를 지금의 튼튼한 기반위에 세우시고 조직확장과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신정택 총재님께서 이루신 큰 업적의 바통을 이어받는 저로서는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신정택 총재님의 탁월하신 경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1만 7천여 회원들과 해양경찰의 든든한 지원을 믿기에 담대한 마음으로 제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naugural Speech



앞으로 저는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대원들의 복지향상과 그 동안 누누이 강조되었던 보다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아울러 우리협회의 당면과제인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해양경찰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일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줄탁동시啍啄同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가 안과 밖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저와 우리 회원들이 푹푹 뭉치고 협력하여 협회설립 당시의 지향점이었던 선진 해양강국들의 민간해양구조봉사단체나 육상의 의용소방대를 능가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부총재, 이사 등 임원진과 각 지역에서 불철주야 활동하고 계시는 지부 협회장, 지역대장들을 비롯한 회원 모두에게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경자년 한해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한국해양구조협회 신임 총재 김 성 태

총재 이력

성 명	김 성 태(金成泰)	
학 력	1967.02	진주고등학교졸업
	1972.12	한국해양대학교 졸업(공학사학위취득)
	2001.02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경영학박사학위 취득
	2009.02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박사학위 취득
군경력	1973.03	대한민국해군 소위임관
	1975.03	대한민국해군 중위전역
일반경력 및 기타	1975.05 ~ 1983.10	선박승선근무(2기사, 1기사, 기관장)
	1999.02 ~ 2001.04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제9대 이사장 역임
	2000.03 ~	부산상공회의소 제17 - 23대 의원 및 부회장 피선임
	2001.09 ~	(사)신남북방해양경제연구소 이사장 취임
	2003.12 ~ 2009.12	부산항만공사(BPA) 제1, 2대 항만위원 및 위원장 역임
	2006.03 ~ 2018.03	부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2009.05 ~ 2018.09	주부산칠레명예영사 역임
	2010.04 ~ 2016.04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제10, 11대 회장 역임
	2010.04 ~ 2016.04	진주고등학교 제30, 31, 32대 총동창회장 역임
	2012.12 ~ 2020.02	(사)한국해양구조협회 부총재 역임
	2020.02 ~	(사)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피선임
	2014.01 ~ 2016.01	한국해양대학교 제16대 총동창회장 역임
	2016.07 ~ 2019.07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역임
	2019.02 ~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제22대 이사장 취임
경영분야 경력	1986.10 ~	(주)코르웰 창립, 대표이사 취임
	1992.08 ~	동일조선(주) 인수, 대표이사 취임
스포츠분야 경력	1998.07 ~ 2001.09	부산광역시 수중협회 회장 역임
	2001.09 ~ 2009.02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제17, 18대 회장 역임
	2008.09 ~ 2015.01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부회장 역임
	2009.09 ~ 2013.11	아시아태권도연맹 이사 역임
	2010.05 ~ 2015.12	국기원 제1, 2대 이사 역임
	2015.01 ~ 2018.02	태권도진흥재단 제4대 이사장 역임
	2019.04 ~	국기원 제4대 이사 피선임
수상경력 및 기타	2005.05	제10회 바다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상
	2007.12	제25회 부산산업대상 경영대상 수상
	2012.05	제13회 부산문화대상 수상
	2018.01	제18회 “자랑스러운 海大人(한국해양대학교)”상 수상
	2018.04	제13호 “자랑스러운 嶺高人(진주고등학교)”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취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국의 해양경찰 가족 여러분!



해양경찰청장
김 홍 희

반갑습니다. 취임소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현재 전국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이 많습니다. 전 해양경찰청 구성원을 대표하여,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조속히 상황이 진정되어 국민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해양경찰 동료 여러분!

1994년 부푼 꿈을 가지고 새내기 경위로 임용되었던 청년은 26년이 지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고, 희로애락을 느끼며 지내온 저의 머리 위에는 언제나 해양경찰이라는 든든한 지붕이 있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해양경찰의 청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경찰 창설 66년 만에 제정·시행된 해양경찰법에 따라 임명된 최초의 청장이라는 명예는 저의 어깨를 무겁게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자립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었고,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조직이 되었다는 사실은 저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해양경찰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현배 전임 청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육지의 4.5배에 달하는 광활한 바다를 가진 해양국가입니다. 그 소중한 바다를 지키고, 그곳에서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고귀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풍랑의 바다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해양경찰 동료들이 곁에 있다는 생각에 든든함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양경찰 동료 여러분!

21세기 들어 세계 각국은 해양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바다의 풍부한 자원과 해양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자신들의 영유권 확대를 위해 호시탐탐

해양경찰청장 취임사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분쟁화와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를 둘러싼 동해, 서해, 남해의 경계미확정 해역에서도 조금이라도 자국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해양산업뿐만 아니라 안전과 치안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고, 안심하는 것이 아닌 언제나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예측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적 변화와 단단한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미래 해양력 구축을 견인하고, 바다에서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시금 해양경찰의 역할을 주목하는 이 시기에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다에서의 어떤 재난과 재해에서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해양경찰은 그동안 해양사고 대응력을 높이고, 구조중심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고다발해역에 구조거점 파출소를 지정하고 전문 구조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한 출동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사고 신고접수를 지방청으로 일원화하여 일선에서는 사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구조인력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눈높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조안전 인프라를 한층 고도화하고, 선진 수색구조기술 개발, 교육훈련 강화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구조세력과의 밀접하게 협력하여 완벽한 해양재난 대응체계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해양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양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바다라는 공간에서, 주권수호, 안전관리, 치안질서 확립, 환경보호 등 경찰·소방·군 등이 육상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임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 특성상 모든 활동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교육훈련 체계를 혁신하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경찰 한명, 한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체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고민과 문제의식 속에 최고의 업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조직의 역량과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본청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속초든, 목포든, 제주든 현장을 방문하여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따라

미래지향적인 업무영역을 개발하고 첨단기술 역량을 제고해야 합니다.

우선, 지난 해 수립한 「미래 발전전략 2030」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과정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현장 업무역량은 얼마나 첨단화된 ‘스마트’한 조직인가로 평가받을 것이고, 이를 위해 무인항공기,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과의 접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간의 관행과 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히 새로운 업무방식을 도입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직원에게는 그에 상응한 보상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부서간, 계급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방적 하향식 문화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서와 계급의 칸막이를 넘어 중요한 현안과 고민을 언제나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부터 권위적인 수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그간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으나, 그런 어려움을 넘을 수 있었던 힘은 언제나 제 주변의 동료였고, 해양경찰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조직원 모두가 화합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속에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가 조속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양경찰 동료 여러분!

우리 해양경찰은 건국 이후 반세기 넘게 소중한 해양영토와 주권을 목숨 걸고 지켜 왔습니다. 바다에서 우리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는 해양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논어 헌문(憲問) 편에 “수기안인(修己安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갈고 닦아서 백성을 편하게 해야 한다는 공자의 말씀입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스스로를 갈고 닦아 국민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멈춤 없는 우리의 노력과 정성은 머지않아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국민의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드넓은 바다를 향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도 청장이라는 권위의식을 내세우는 대신, 똑같은 동료로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달려가겠습니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가장 앞에 서서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이 재출범한 이후 새롭게 조직의 기반을 다져주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전임 조현배 청장님께도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도 더 큰 행복과 영예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바다를 누비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사랑하는 우리 해양경찰 동료들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5일

제17대 해양경찰청장 김 홍 희

제17차 이사회 및 2020년도 정기총회 서면으로 대체

지난 2월 27일 개최예정이었던 이사회 및 정기총회는 서면으로 대체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집단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사회는 재적 총 44명 중 32명으로부터 서면 회신을 받았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지역대 설립 및 변경의 건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2019년도 결산심의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규정 개정의 건 ▲임원 사임 승인 및 추천의 건 ▲정기총회 상정 안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지역대 설립 및 변경은 민간해양구조대와의 통합에 따라 구조대가 신규 또는 통합 발대 하면서 8개 지부에 소속된 25개 지역대가 설립 및 통합되었다. 유공자 포상과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5인, 총재 단체 표창 3단체, 총재 개인 표창 9인, 공로패 4인이 선정되었다.

이어 임원 사임 승인 및 추천의 건은 신정택 총재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김성태 수석부총재가

후임 총재로 추천되었고 총회에 상정되었다. 또한 기관/단체장 변경 및 인사발령에 따른 당연직 임원이 선출되었고 강원남부, 경남서부, 전남서부, 충청남부, 경기충남북부지부 등 5개의 지부에서 신임 협회장이 선출되어 총회에 상정되었다.

정기총회는 재적 총 132명 중 104명으로부터 서면 회신을 받았으며 제17차 이사회 의결안에 따라 ▲2019년 감사보고서 및 결산 승인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 선출 및 승인의 건 등 총 3가지 의안을 상정하였고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총재 이·취임식과 유공자 포상과 관련된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상황에 따라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개최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민간해양구조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지난 2월 26일, 해양경찰청은 금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피복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확보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은 지난 2018년 전체 해양사고 발생 선박 3,234척 중 427(12.4%)척을 구조한 바 있다.

현재 우리협회는 2018년부터 이원화 된 민간해양구조대를 한국해양구조협회로 조직을 일원화해 오고 있으며 현재 2,509명의 구조대원과 3,000명의 구난대원이 소속되어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구조구난활동을 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활동까지 더해지면 수천 건의 누적 활동 횟수가 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일선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대원들은 피복조차 자신의 사비를 들여 구매해왔으며 구조활동에서 기본적인 장비조차 지원받지 못하였다. 또한 타 공공기관의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소방청),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와 비교해 볼 때 바다에서의 구조활동은 환경적으로 생명에 대한 위협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상해보험 등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이 전무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피복 지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시작으로 대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해양구조활동을 더욱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해양경찰의 동반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해 민간해양구조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끈 국민참여 예산의 큰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강사워크숍』 개최

지난 1월 11일, 우리협회는 부산시 장애인종합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20년 강사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민흥기 이사장과 재난안전지도사, 인명구조강사 자격을 가진 45명의 강사진들이 참석하였다.

2019년 1년 동안 우리협회는 총 1,259명의 인명구조요원을 배출하였으며 인명구조강사 9명, 재난안전지도사1급 33명, 2급 25명, 3급 495명 등을 배출하였다. 국가자격증인 수상구조사는 47명의 수강생들이 교육수료증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규정에 대한 개정내용을 전달하였으며 강사들이 숙지해야 할 필수점검 사항 및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년 동안 강사로서 모범을 보여준 우수지도자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되었는데 인명구조분야 김경수 강사, 재난안전지도분야 김지혜 강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단체기념사진

교육연구본부 최수근 본부장은 “여기 계신 강사님들 덕분에 협회는 1년간 다양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민간해양구조대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등 교육의 기회를 확충하고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 민흥기 이사장이 김경수 인명구조강사에게 우수지도자상을 수여하고 있다.



▲ 행운의 추첨권 이벤트에 당첨된 강인철 강사



통영구조대장 이·취임식

지난 1월 9일, 우리협회 통영구조대는 죽림해피데이 컨벤션 홀에서 제15·16대 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 좌) 단체기념사진 / 우) 조창국 대장에서 견장을 달아주고 있는 민홍기 이사장과 취임사 중인 조창국 대장

이날 행사에는 우리협회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경남서부지부협회장, 통영 부시장, 경상남도의회 의원, 통영 시의회 의장, 통영해경서 경비구조계장 등 각 기관 단체장 및 통영구조대원을 포함한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01년부터 통영지역대로 활동해온 통영구조대는 20년간 지역 내 해양에서의 각종 사고 구조활동, 해양오염 예방 및 정화활동, 하계인명구조센터 운영 등 해양안전 및 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는 역사가 깊은 구조대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나눔행사를 진행해 오며 진정한 봉사단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임 제주석 대장은 통영구조대 설립 당시부터 입회하여 2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시기부터 조직의 기틀이 마련될 때까지 묵묵히 일선에서 봉사해왔으며 지난 2년간 리더로서의 면모를 여감 없이 보여주며 구조대를 이끌어왔다.

금번에 취임한 신임 조창국 대장은 2002년 통영구조대에 입회한 이후 해양과 관련된 봉사경력만 18년을 보유한 전문적인 구조대원으로 각계각층의 표창장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하며 타의 모범이 되어 온 대원이다.

조창국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구조대가 오늘날과 같이 든든한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대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것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함께 해주실 선후배 대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해낼 자신 또한 있으며 우리 구조대만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남동부지부, NDL KOREA와 업무협약 체결



◀ (왼쪽부터) 임동균 관리부장, 우지웅 전남동부특수구조대장, 조병중 협회장, 박병화 NDL KOREA 본부장, 여인조 서부산구조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우리협회 전남동부지부는 NDL(National Dive League)KORE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NDL은 스쿠버다이빙과 프리다이빙, 테크니컬다이빙 등의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ISO 국제표준화 기구, EU(유럽) 규격 등을 인증받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교육단체이다.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스킨스쿠버 교육에 필요한 자원 및 정보의 상호 교류뿐만 아니라 기타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전남동부지부에서 그동안 운영해온 해양체험레저스쿨 스킨스쿠버 1일 체험장에 더하여 전문자격증반을 개설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동부지부 조병중 협회장은 “여수 관광객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해양전문 인력의 보충 또한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협약처럼 해양인재양성을 위해 보다 다양한 전문교육기관들과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충청남부지부 후원구조대 사무실 개소



◀ 후원구조대 사무실

지난 3월 6일, 우리협회 충청남부지부 후원구조대는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에 구조대 사무실을 개소하였다.

보령해양경찰서와 협력하여 충청남부지역의 구조구난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후원구조대는 구) 후원파출소 남촌 출장소를 할애받아 서천군의 국유재산사용 승낙과 해양경찰청의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득해 사무실을 개소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후원구조대는 서천군 서부수협에서 현판 등을 후원받았으며 서천화력 및 서천군에서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후원구조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

이번 사무실 개소를 통해 후원구조대는 보다 유기적으로 보령해양경찰서와 공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좀 더 빠른 기동력과 대원들의 팀워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원구조대의 개소식은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따라 추후에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 구조 · 구난 소식

| 강원북부지부, 속초 영금정 앞바다 실종 다이버 수색

지난 2월 22일, 속초시 영금정 1.3해리 수중에서 60대 다이버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수색작업에 나서고 있는 구조대원들



▲ 수색작업 전, 회의중인 대원들

해양스포츠 업체 다이버 9명이 함께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도중 60대 A씨가 보이지 않자 일행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해양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우리협회 강원북부지부는 서일민 협회장을 비롯한 전문 구조대원들이 동원되었다. 강원북부지부는 사고발생일부터 7일간 수색작업에 참여하였으며 하루평균 25명의 구조대원이 투입되었고 누적 인원만 200여명의 대원들이 동원되었다. 이번 수색작업 동안 강원북부지부 구조대원들이 다이빙한 횟수만 350회 가량이 될 정도로 총 인력을 동원하여 수색작업을 펼쳤다.

사고현장은 수심 약 37m의 심해로 수색작업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며 초속 10~12m의 바람과 약 2m의 파도가 치는 등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A씨는 끝내 발견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더하였다.

| 부산지부, 감지해변 앞바다 실종 다이버 수색

지난 2월 9일, 부산영도구 감지해변 앞바다에서 40대 다이버가 실종되어 우리협회 부산지부 소속 구조대원들이 부산해경과 함께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

다이버 A씨(40)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해양스포츠 업체에서 공기통 등 잠수 장비를 빌려 혼자 바다에 입수하였다. 이후 2시간 넘게 A씨 모습이 보이지 않자 업체 사장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부에서는 사고발생



일로부터 이틀간 총 18명의 잠수구조대원들이 투입되었으며 드론을 이용한 수색작업도 함께 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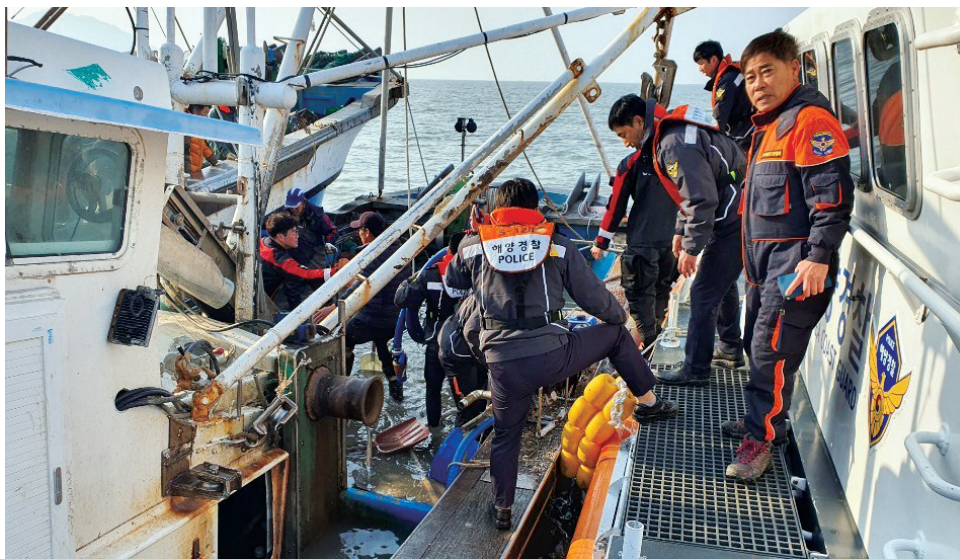
실종자 A씨는 지난 2월 12일, 영도파출소 민간해양구조선 B호(2.99t)가 영도구 감지해변 앞 100m지점에서 폐그물을 끌어올리는 도중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더하였다.



▲ 수색작업에 동원된 부산지부 소속 구조대원들

| 장흥구조대, 침수된 꼬막작업선 대양호 견인

지난 2월 27일, 장흥군 안양수문 앞바다에서 꼬막작업을 하던 대양호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대양호 견인작업중인 장흥구조대와 해양경찰

이번 사고는 과적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선장의 과실로 드러났다. 사고 연락을 받은 우리협회 장흥구조대는 박종문 대장, 김성필 특수구조대장을 비롯한 11명의 잠수구조대원들이 출동하였다. 다행히 사고 당시 지나가던 민간어선이 침수가 막 시작된 대양호를 발견하여 선원들을 즉각적으로 구출할 수 있었다. 장흥구조대는 어선 2척과 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안전하게 대양호를 견인하였다.

경남서부지부 통영시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성금 2백만원 전달

-‘통영시 해양환경정화 릴레이 캠페인’으로 에코적립금도 꾸준히 기부-

지난 1월 18일, 우리협회 경남서부지부는 통영시청에서 이웃돕기 사랑의 성금 2백만원을 기탁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 김태군 경남서부특수구조대장, 장명옥 구급봉사대장, 김정훈 기획실장이 참석하였다.

금번 모금활동은 지난 1월 6일, 경남서부지부에서 주최한 ‘통영시 해양구조인의 밤’ 행사에서 축하 화환을 이웃 돕기 성금으로 대체하였기에 행사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였다.

이어 경남서부지부는 지난 2월 26일 통영시 해양환경정화 릴레이 캠페인 31호를 이어갔다. 도산면가오치선착장에서 진행된 환경정화활동은 통영 지역기업 ‘디자인 숲’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수변정화활동을 통해 2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 (왼쪽부터)김정훈 기획실장, 김태군 대장, 강석주 통영시장, 장명옥 대장

경남서부지부는 2018년부터 진행해온 이 캠페인 활동으로 매년 150만원의 에코적립금을 마련하여 통영시에 기부하고 있다. 금년에도 캠페인 활동을 이어가며 해양안전 및 보호활동뿐만 아니라 봉사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 환경정화활동 중인 경남서부지부





통영구조대, 설 맞아 통영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에 떡국나눔행사



▶ 복지관에서 떡국나눔행사중인 통영구조대

지난 1월 23일, 우리협회 통영구조대는 통영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지역주민과 함께 명절 맞이 떡국나눔행사를 가졌다.

통영구조대는 매년 장애인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떡국나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행사에는 충무고 학생들이 제작한 수공예품 판매 수익금을 복지관에 전액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나눔을 진행하면서 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초창국 통영구조대장은 “명절을 앞두고 뜻깊은 나눔행사를 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나눔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하였다.

통영구조대는 이날 행사 후, 통영시 미혼모시설인 웅달샘을 방문하여 후원 물품을 전달하면서 나눔행사를 이어갔다.



▲ 떡국을 준비중인 통영구조대



▲ 미혼모시설에 생필품, 식료품을 전달하는 통영구조대

지부이야기 _전남동부지부

‘해양관광도시’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이야기 전남동부지부

아름다운 섬과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여수시는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역사와 문화적인 면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비취빛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는 365개의 섬 하나하나가 신비로울 만큼 아름답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두 개의 해상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여수항을 ‘동양의 나폴리’라 부르는 것은 연안항과 무역항이 자리 잡고 있어 산업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양의 경관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다양한 먹거리가 풍성한데다, 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추위가 심하지 않아 여수시는 그야말로 사시사철 볼거리가 넘치는 관광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해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해양관광도시 여수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가장 일선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양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협회 전남동부지부를 들여다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여수해양을 책임질 인재양성은 우리가 맡는다. 전남동부지부의 ‘여수마린스쿨’

여수는 연간 1천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자리잡았다. 만성리해수욕장, 오동도, 여수 갯벌노을마을, 상화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돌산대교, 거문도, 모사금피서지 등 수많은 섬과 해수욕장 그리고 해양레저체험장이 준비해 있는 여수는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만큼이나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요원 또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나 해양과 관련된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과 같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해야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여수시는 시에서 전액 교육비를 부담하고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과정인 ‘여수마린스쿨’을 개설하였으며 우리협회 전남동부지부에서 교육을 전담해오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여수마린스쿨은 1년간 100여 명의 인명구조요원 양성을 목표로 잡고 4월부터 6월까지 1회당 20여 명의 수강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하였다. 약 2년간 200여명의 인재들을 배출해온 전남동부지부는 자격증을 취득한 요원들을 대상으로 여름이 되면 여수시 8개의 해수욕장의 안전요원으로 파견을 보내는 등 여수시의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이어 전남동부지부는 현재 해양체험레저스쿨 스킨스쿠버 체험장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1일 체험과정을 해왔지만 금년 5월부터는 1년간 60명 정도의 스킨스쿠버 전문자격증반을 개설할 예정이다.



▲ 여수마린스쿨 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 중인 전남동부지부



▲ 전남동부지부의 해양체험레저스쿨 스킨스쿠버 체험

또한, 여수와 고흥을 잇는 해상교가 지난 2월 28일 완전개통되었다. 이번 해상연결로 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를 배를 이용하지 않고도 육지와 섬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전남동부지부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양안전에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 섬 지역에서 가능한 해양안전체험장 운영 또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

전남동부지부의 노력은 해양전문인재양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2년 전, 전남동부지부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구조활동을 위해 최정예 구조전문요원으로 꾸려진 전남동부특수구조대를 발대하였다. 구조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적인 훈련 뿐만 아니라 여수해양경찰서 해경구조대와 SNS밴드를 개설하여 각자 훈련 가능한 날짜 등을 조율하고 훈련방법을 공유하는 등 잦은 소통을 통해 수시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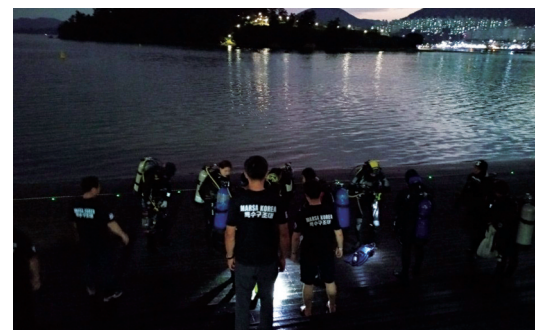
특히나 여수에는 여수해양경찰교육원이 있어 다양한 환경을 연출하여 강도 높은 훈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분에 훈련 풀에서 높은 파도, 거센 바람, 구조헬기 등 실제 사고현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매번 대원 개인의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 2019년 1월 21일, 고흥 차량추락 운전자 구조활동에 나서고 있는 전남동부특수구조대



▲ 여수해양경찰교육원 훈련풀에서 거센파도를 연출하며 훈련을 진행중인 해경과 전남동부지부대



▲ 야간 다이빙 훈련중인 전남동부특수구조대



지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소통

전남동부지부는 지난 2019년, 민간해양구조대원 360여명을 지부로 영입하여 일원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 6개의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해양구조대를 설득해 왔다. 아직은 통합의 초입 단계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이에 전남동부지부 조병중 협회장은 유대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해양구조대 6개 지역의 각 대장들과의 잦은 친목 모임을 주도해 오고 있다. 향후 지부 사정에 따라 교육 확대로 이어나가 결속력을 다질 예정이다.

또한, 여수해양경찰서 해경구조대와도 잦은 간담회를 통해 민·관 합동훈련과 구조활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구조 활동 능률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금년에는 늘어나는 여수 방문객만큼이나 해양사고에 대한 경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해양전문가를 영입하여 구조대 조직 편성 및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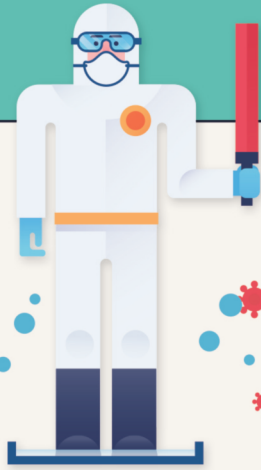
▲ 주기적으로 모여 친목도모와 해양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남동부지부

고유명사가 된 ‘여수밤바다’

2012년에는 어느 유명 가수의 ‘여수밤바다’ 노래가 음악차트 1위를 몇 주간 차지하며 여수바다에 대한 청춘들의 감성을 더욱 일렁이게 하였다. 봄기운이 만연해질 때면 이 노래는 국내 음악차트에 다시금 상위권으로 진입한다. 이처럼 ‘여수밤바다’는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각인되어 낭만의 도시로 전국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우리가 ‘여수밤바다’의 감성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여수시의 해양을 즐길 수 있는 건 이처럼 다양한 노력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을 보전하기 위한 봉사자들의 노고가 있기에 가능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아름다운 노래 가사 속의 여수바다를 해마다 마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안전을 부탁 海



우리지역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저지에 나선 구조대원들

경북특수구조대 / 경남서부지부 / 전북북부지부 / 장흥구조대

입춘(立春)에 들어섰지만 국민들은 봄을 느낄 새 없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풍경은 180도 변하였다. 주말의 거리는 한산해졌고 국제회의, 박람회, 종교행사, 결혼식 등 사람들이 모일 수 밖에 없는 모든 행사가 일시정지 된 듯 멈췄다. 매일 아침 정부에서 보내주는 재난문자로 하루를 시작하고 뉴스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집계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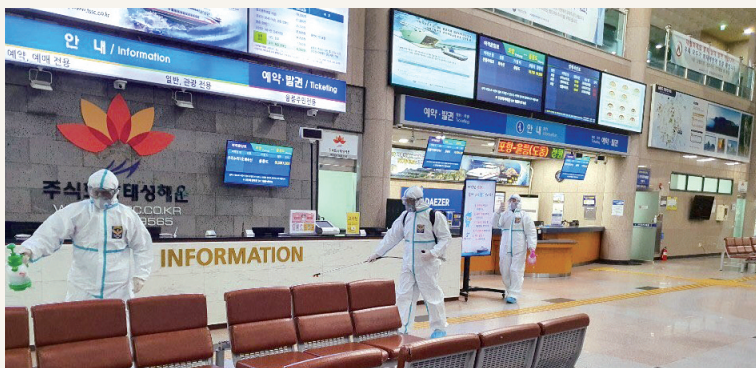
2, 3월은 우리협회에게도 매우 중요한 달이다. 새봄의 기운과 함께 전국 구조대들이 개해제(開海祭)를 열어 금년에도 안전한 바다, 후손에게 물려줄 바다를 보호(보존)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권고사항대로 모든 행사는 현재 멈춰 있으며, 추후 진정국면이 올 때까지 각종 교육은 물론 해양환경정화활동 등 다수가 집결하는 행사는 당분간 없을 예정이다. 비록 바다행사는 잠시 멈춰 섰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우리협회 구조대원들은 바이러스 저지를 위한 방역 봉사에 나서고 있다.

경북특수구조대,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자발적 방역 실시

우리협회 경북특수구조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기금을 모아 방호복과 마스크, 소독제 등을 구입해 코로나19 확산저지 방역활동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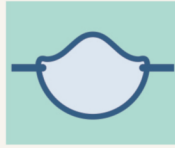
경북특수구조대는 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포항여객터미널 등 다중시설이 산재해 있는 상가와 주변시설을 중심으로 방역하였으며 포항해양경찰서와 공조하여 포항시 동빈내항의 어선에도 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승욱 경북특수구조대장은 “그동안의 자원봉사와는 달리 방역활동에 나서 달라고 대원들에게 요청하기가 부담스러웠다”며 “무엇보다 방역에 앞서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안전장비를 확충하고 방역 이후 사용된 방호복 처리 후속 조치까지 마련하여 최소 정예 요원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북특수구조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지역사회 방역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좌) 여객선터미널에서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북특수구조대원 / 우) 방역작업에 나서기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황승욱 경북특수구조대장

안전을 부탁 海



통영시 대중교통 안심 이용 캠페인, 경남서부지부 코로나 방역작업

통영시에서는 민·관 합동 코로나19 방역 실시에 나섰으며 통영시 소재 4개 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주자로 활동하게 된 우리협회 경남서부지부는 지난 3월 10일 통영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통영시 지원 물품 이외에도 개인소유 살분무기 등을 동원하여 방역작업을 실시하였다.



▲ 버스 내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서부지부 대원

특히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시내외 버스에 소독제를 살포하고 버스 손잡이와 의자를 깨끗이 닦았으며 공공기관 및 다중 집합장소 등을 방문하여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서부지부에서는 금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방역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북북부지부,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는 드론 방역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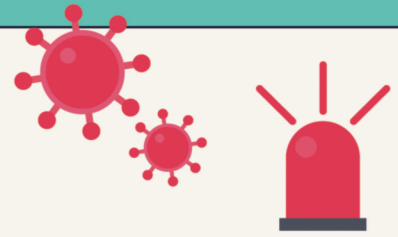
우리협회 전북북부지부는 지난 3월 8일부터 군산 관내 공공기관 및 다중시설에 방역작업을 실시하였다. 첫 시작은 전북북부지부의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시작하였으나 소식을 전해 들은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시보건소, 군산시청에서 방역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고 공동으로 협력하여 군내 방역지역을 넓혀나갔다.



▲ 드론을 이용해서 방역을 진행하고 있는 전북북부지부 대원

특별히 드론을 이용하여 방역작업에 나선 전북북부지부는 10리터의 약품을 실을 수 있는 드론 2대와 22리터 대용량을 실을 수 있는 드론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 10리터 분량의 방역 약품을 실을 수 있는 드론은 15~20분 내로 약 3천평에 분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방역이라는 특이점을 고려하여 한 곳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촘촘하게 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00평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의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한 장소 등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쉽게 소독약을 살포할 수 있어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 공공기관 등 소독작업을 진행중인 전북북부지부

전북북부지부는 군산 관내뿐만 아니라 지역을 좀 더 넓혀 지난 3월 13일에는 군산에서 34km떨어진 섬 방축도를 군산해양경찰과 군산시와 함께 방문하여 방역작업을 펼쳤으며 이어 충청남부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및 공공시설 그리고 방역작업에 소홀할 수 있는 외곽 지역으로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장흥구조대, 장흥군 내 방역작업에 나서

지난 2월 24일, 우리협회 장흥구조대는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터미널 등 다중시설 및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방역작업에 나섰다. 이날 하루 동안 23명의 대원들이 참여하여 지역 곳곳에 방역작업을 펼쳤으며 곽태수 도의원의 도움으로 방역작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버스 내 방역작업 중인 장흥구조대

장흥군 내에서는 다행히 아직 확진자 사례가 없어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고 향후 다시 방역작업에 나선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숨은 영웅들

바다행사가 취소 되었다고 해서 해양사고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뉴스는 초유의 재난사태인 코로나19로 뒤덮여 있지만 여전히 어업에 나서는 어선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현장에서는 언제나 우리협회 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어 우리는 안전한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우리는 작은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기도 한다. 자발적으로 대구에 내려가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의료종사자들,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재료로 의료종사자들에게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개인의 시간과 사비를 각출하여 지역사회 방역작업에 나서고 있는 우리협회 봉사자들까지,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는 일선에서 묵묵히 활동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숨은 영웅들 덕분에 우리는 좀 더 빨리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용기를 얻으며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국의 우리협회 봉사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다시금 해양에서의 마음껏 봉사활동을 펼치며 바다사랑을 실천해 나갈 그 시기 또한 멀지 않았음을 유추해 본다.

환경을 부탁 海



환경보호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 '업사이클링'

수거된 플라스틱은 재활용되거나 소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생산량에 비하여 극히 낮은 비율만 처리가 가능하다. 가장 쉽게 태워버리는 방법이 있지만 소각에 따른 공기오염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이처럼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 '업사이클링'이 유행을 넘어 트렌드로 자리잡으며 환경보호에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로 버려진 물건을 해체해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을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 페타이어, 폐자전거, 빈병, 플라스틱 등 해양환경오염의 주범이었던 폐쓰레기들이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면서 매력적인 제품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골칫거리 폐쓰레기에 디자인을 더하다.



▲ 좌)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달빛어린이공원에 휴대폰 케이스, 배터리케이스 등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으로 탄생한 놀이터 / 우) 노스페이스 친환경 신발

1993년 스위스 프라이틱(Freitag)이라는 기업이 버려진 트럭 방수포를 사용하여 가방을 만들면서 최초의 업사이클링이 시작되었다. 윤리적인 기업이라며 찬사를 받고 성장하며 현재 서울, 뉴욕, 베를린, 도쿄 등 전 세계 4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하나의 트렌드로 100여 개가 넘는 업사이클링 기업이 탄생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는 페플라스틱병을 갤러리 S20+케이스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2스트랩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을 진행하였다. 먼저 페플라스틱병을 녹여 성분을 변화시킨 뒤 작은 칩 형태로 만든다. 이 칩에서 실을 추출해 케이스를 만들게 되어 버려진 500ml용량 플라스틱병 1개로 갤럭시 S20+케이스 2개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친환경 소비에 주목하는 소비자가 증가추세에 접어들면서 2020년 패션의 새 탈출구도 '업사이클링'이 대두되고 있다. 빈플레이디스는



해양쓰레기의 주범 페어망을 재활용한 재생나일론 소재의 트렌치, 재킷, 패딩 코트 등을 출시하였다. 걸감은 세척과 방사 과정을 거친 페어망 원사를 옷의 걸감으로 사용했고,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자체 개발한 재생 폴리를 충전재로 활용하였다. 업사이클링 패션 아이템은 의류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스페이스에서도 지난 2월 페트병 리사이클링 원단을 써서 만든 친환경 신발 2종을 출시하였다.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변화될 수 있다.

최근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경험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다. 국민들의 재활용 분리수거율은 80프로가 넘는다고 하지만 정착 분리수거시설 부족과 처리과정 문제점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분리배출을 넘어 감량으로 가야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7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동안 배출하는 쓰레기는 41만톤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2019년 현재 우리나라에 쌓인 불법 폐기물 양은 120만톤에 달한다. 결국 이 쓰레기들의 최후는 바다로 흘러들어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악순환된다.

2019년 1년 동안 우리협회가 진행한 해양환경정화활동은 약 80여 건에 달한다. 보고되지 않고 수시로 진행되는 곳도 많아 파악되지 않은 누적집계된 곳까지 포함한다면 수백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수거량은 적게는 2톤부터 많게는 50톤까지 1년간 수천 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매년 줄지 않은 해양쓰레기를 보며 우리협회 봉사자들은 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어민들의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쓰레기 감소변화를 실감하기는 어려워 매년 늘어나는 해양쓰레기에 바다와 함께 몸살을 앓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업사이클링과 같이 최근 친환경 소비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바다를 지키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기후변화를 인지하는 첫 세대이며 지구환경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환경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10대들에게 환경 이슈는 미래 소비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업사이클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친환경 가치는 전 세계 시장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의 위기의식에 따른 행동 변화는 직접적인 산업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업사이클링과 같은 친환경 이슈를 통해 모두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엿보면서 우리는 일선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헌신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피부에도 곧 와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 페그물, 페타이어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우리협회 대원들



▲ 수중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우리협회 대원들



● 해수부, 봄철 맞아 대대적인 해양교통 안전점검 실시

● 문성혁 해수부 장관, 어선사고 예방 현장, 경제활력 위한 민생 현장도 점검



해양수산부는 3월 6일(금) 문성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봄을 맞아 어선사고 예방 지도 등 해양교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봄철(3~5월)에는 바다에 잦은 안개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조업 어선수도 증가하는 계절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경·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3월 16일부터 3월 27일 2주간 제주 서귀포, 경남 통영지역에 화재사고 예방 전담반을 구성(KOMSA)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어 3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40일간 전국 11개 시도별로 100척 이상의 어선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5~10톤 미만의 소형어선과 화재에 취약한 노후어선, 낚싯배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 합동점검반 : 해양수산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등

문 장관은 “많은 어선원이 탄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선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큰 사고도 작은 부주의가 원인이 되므로 평소에 철저한 정비와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문 장관은 올해 해수부 핵심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올해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만리포항은 서해안 3대 해수욕장 중 하나인 만리포 해수욕장과 인접하고 빼어난 해상 경관과 편리한 교통,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져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전체적인 방문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활력 방안을 찾고 있다. 태안군은 만리포항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항시설을 개선하고 전망데크, 관광안내소, 스쿠버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문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만큼, 사업비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할 예정이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의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70개소에 이어 2020년도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천억원, 지방비 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출처 - 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근해어선 줄인다

감척 대상자 · 어선원에게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나라 어선의 일본수역 조업 의존도를 낮추고,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근해어선 45척을 직권*으로 감척한다.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91만 톤 수준이었던 연근해 어획량은 2018년에 101만 톤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다시 91만 톤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멸치 등의 어획이 저조한 상황이다. 게다가,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수역 입어가 4년째 중단되어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근해어선 총 85척 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40척의 자율감척 신청을 받았으며, 이에 더하여 45척의 근해선박을 직권으로 감척할 계획이다.

이들 직권감척 대상은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높은 근해연승 10척과 근해채낚기 4척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대형트롤도 5척을 줄인다. 또한, 국내 수산자원 회복과 조업경쟁 완화를 위해 근해안강망 5척과 소형선망 7개 선단(21척)을 감척한다.

직권감척 대상은 어선의 선령 · 규모(톤수, 마력수), 수산관계 법령 위반 사항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지만, 업계에서 자체 구조조정 계획이나 감척대상자 등을 제시할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직권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선주에게는 어선 · 어구 매입과 폐업지원금을, 해당 선박의 어선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감척에 불응할 경우에는 면세유 공급량 축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누리집(www.mof.go.kr)을 통해 3월 6일부터 ‘2020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공고하였으며, 7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7~8월경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직권 감척은 수산자원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위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라며, “어선 감척, 휴어기 지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높이고,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출처 - 해양수산부]

국내뉴스

● 이제는 바다에서도 ‘너의 목소리가 보여’

● 선박 통신 상태 실시간 확인하여 해양사고 줄인다



해양경찰청은 많은 사람이 승선한 여객선의 통신기가 꺼져있는지 등 선박의 통신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선박통신 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여 해양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지난 2월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된 선박 통신체계 개선 사업으로,

※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 유망 정보통신기술(ICT)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공공 서비스 혁신 및 신기술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매년 시행

약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 받아 해상교통관제센터 2개소(인천·경인연안VTS)와 경비함정 15척, 다수인명이 승선하는 여객선과 최근 해양사고가 증가한 예부선 등 안전관리 중요도가 높은 선박 35척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용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바다에서 상대 선박 통신기 꺼짐 등의 실제 운용 상태*를 알 수 없어 통신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고 발생 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교신 녹취록을 관제사가 직접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다.

※ 실제 운용 상태* → “좋은 배 나쁜 배 이상한 배, 딱 걸렸어!”

- ✓ (좋은 배) 해상에서 비상채널 등 통신기를 잘 청취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충돌 위험성 및 항행 안전 정보 제공 등 원활한 통신이 가능합니다.
- ✓ (나쁜 배) 비상채널을 듣지 않거나, 음량 또는 전원을 꺼놓아 통신이 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 ✓ (이상한 배) 선박 통신장비를 통해서 욕을 하거나 노래하는 등 타 선박의 통신을 방해하는 선박을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선박 통신기 작동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통신 호출에 응답 없는 선박의 효과적 관리가 가능해 상호 교신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통신음성은 자동으로 문자화(STT, Speech to text)되고, 내용의 저장·출력이 가능하여 관제사 업무 부담이 줄고, 업무 집중도가 향상되는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결과를 오는 5월 네덜란드에서 개최하는 VTS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기술 표준화 및 국내·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여 시스템 구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말하였다.

[출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2월 28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반영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령 시행

해양경찰청은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주요 골자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 법령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를 감안해 조종면허 효력 상실 조항을 삭제 등 국민편의 증진 부분과 음주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상실되어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였으나, 효력정지로 개선되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안전교육만 받으면 면허증이 갱신되어 레저기구 조종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패들보드(Paddle Board) 수요 증가를 반영해, 완화된 등록기준을 적용 받는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대상에 서프보드(Surf Board), 윈드서핑(Wind Surfing) 외에 패들보드를 추가함으로써 수상레저 활성화를 도모한다.



서프보드



윈드서핑



패들보드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를 확대해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 지난 해 4월 신종 수상레저기구인 파워서핑* 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9%(입건기준 0.03% 이상)이었으나,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 **[파워서핑]** 서핑보드에 동력을 내는 모터 형태의 추진기를 단 신종 레저기구

법 개정에 따라 주취 조종금지과 무면허 조종금지 조항 적용을 받지 않던 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술에 취한 상태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500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 출항을 통제*한다.

※ **[개정 전]** 시계 제한(500m) 시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비를 갖추면 운항 가능

- [타 법령 비교] 유·도선 및 낚싯배의 경우 시계제한(1km) 시 일괄통제

이밖에 2000년도부터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수수료가 첫 인상*되며, 시험 대행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 기관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검사대행자로 확대된다.

※ 인상액: 필기시험(4,000원→4,800원), 실기시험(54,000원→64,800원), 수상안전교육(12,000원→14,400원)으로 각 20% 인상(기재부 협의 완료)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상레저안전법령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함께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출처 - 해양경찰청]

국내뉴스

- **해양경찰청, 항포구 차량 추락사고 예방 대책 추진**
- **최근 2년간 연안에서 차량 추락사고 129건, 사망 33명에 달해**

해양경찰청은 연안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추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월 25일 밝혔다.

최근 2년간 연안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531건으로, 이 중 차량 추락사고는 129건으로 약 24%를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33명으로 전체 추락사고 사망자 102명 대비 약

32%에 이른다. 차량 추락에 따른 사망사고는 지역별로 호남지역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소별로는 항·포구 27명, 연령별로는 50·60대가 18명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사고 대부분이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이 적고, 안전 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항·포구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어 차량사고 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연안에 대한 위험성조사*를 실시하여, 차량 추락사고 위험지역은 차량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의거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4조(위험성 조사) 제1항(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관할 연안해역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위험성 조사 실시), 제8조(출입통제장소 지정)에 명시



또한, 해양경찰청은 차량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항포구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해양수산청에 차량 추락방지장치,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물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 「항만법」 제29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항만 및 여항공사 설계기준·해설(해수부)」 하권 6. 계류부대시설 4.2.3 차막이편

· 차량 추락 방지장치 높이 [일반지역] 150-200mm, [위험지역] 250-300mm

뿐만 아니라, 항포구 행사객과 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계도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항포구 차량 추락사고가 매년 지속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는 만큼, 위험한 장소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하였다.

[출처 - 해양경찰청]

협회교육안내

2020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생 모집 안내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는 「수상구조기술향상과정」의 일환으로

2020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구조사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개요

- 과 정 명 :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 주 관 : 한국해양구조협회
- 교육대상 : 수영 100m 이상 가능한자, 해경특공대(경찰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
- 교육 및 접수기간 : 연중 주말반 운영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 교육인원 : 과정별 각 40명 (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강의실 및 수영장
- 교 육 비 : 금500,000원 (수협 1010-1020-6229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영장입장료 포함
- 최초접결지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117호 강의실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장), 신분증

■ 주요사항

-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며, 본 교육기관에서는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64시간만 진행됩니다. 시험일정 및 장소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교육수료 후 개인이 직접 해양경찰청에 신청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상구조사 교육(64시간) 미 이수 시 추가 보충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보충교육 일정은 교육상황에 따라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 교육시작일 부터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수강취소를 원하시면 교육 전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문 의 : T. 051-714-3122, F. 051-714-3095, E. kmrc119@hanmail.net
-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imsm.kcg.go.kr>

협회교육안내

2020년 『인명구조요원』 교육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요구조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인명구조요원 육성

| 2020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0년 1월 ~ 12월 (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관할 지역 실내수영장
- 대 상 : 요원 -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강사 - 요원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정 : 인명구조요원 교육(40시간), 인명구조강사(60시간)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 세면도구, 필기도구,
활동복, 활동화, 사진2매
- 교 육 비 : 요원 22만원 / 강사 3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16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법 (24시간) / 구조영법, 종합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인명구조 교수법 (20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자격명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인명구조요원(2014-1485)
인명구조강사(2014-5724)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인명구조요원 / 인명구조강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교육안내

2020년 『재난안전지도사』교육

각종 재난·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20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0년 1월 ~ 12월 (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재난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재난 3급 이수자
3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필기도구, 활동복, 활동화, 사진2매
- 교 육 비 : 1급 30만원 / 2급 10만원 / 3급 5만원
- 교 육 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재난안전의 의미(8시간)
 - 위급시 행동요령 및 구조구급 (8시간)
 - 재난안전 교수법 (50시간)

· **자격명**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372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0년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20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0년 1월~ 12월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해양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필기도구, 활동복, 활성화, 사진2매, 수영복, 수모, 수경
- 교 육 비 : 1급 30만원, 2급 10만원
- 교 육 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해양안전 · 생존 등 해양사고예방의 의미(8시간)
 - 선박화재, 충돌, 침수 등 위급 시 행동요령(8시간)
 - 해양안전 · 생존 등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281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후원안내

1) 월 정기후원 안내

- 아래의 계좌번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1010-1020-6195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2) 특정목적사업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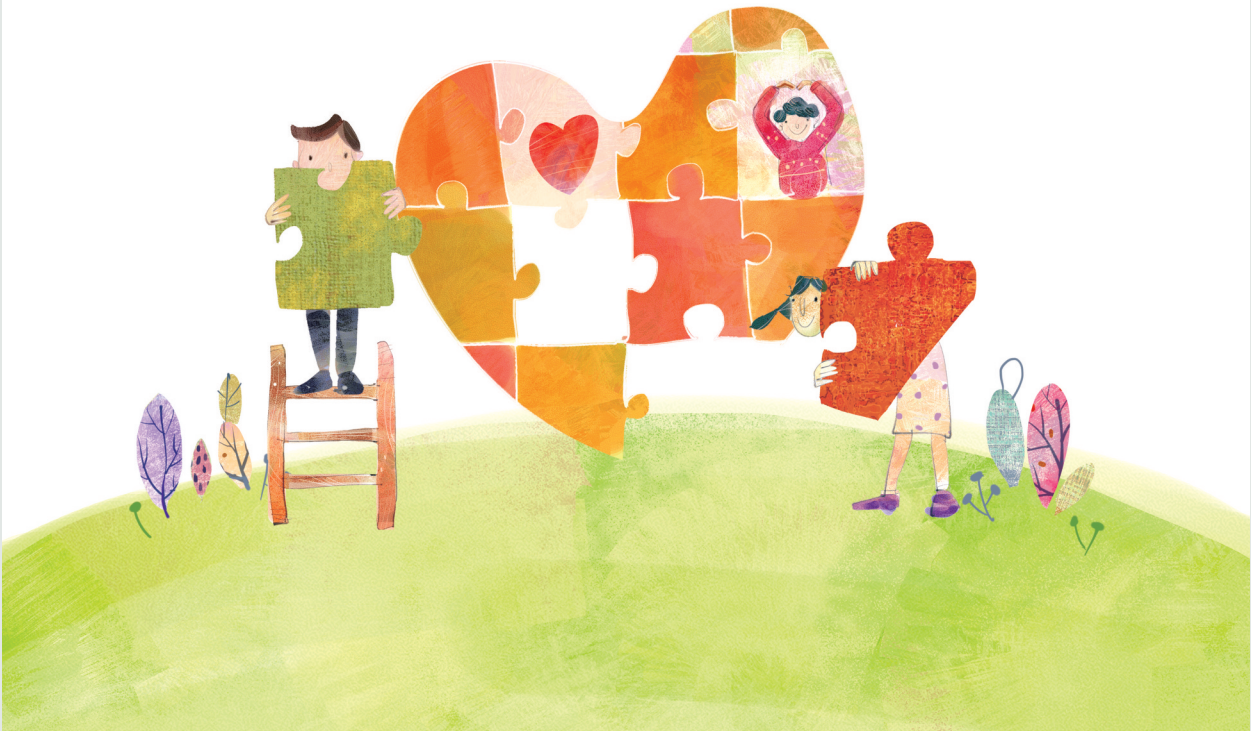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3)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kmrc119@hanmail.net |



가장 좋은 CPR은

bestCP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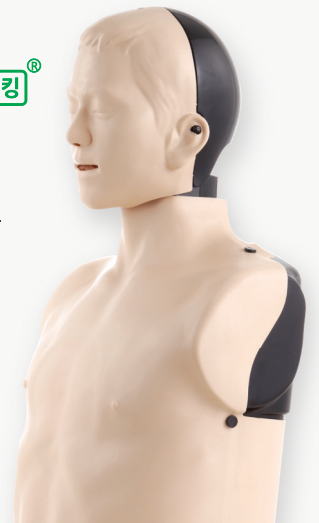
알리고
Rligo AED 트레이너® T200

- ▶ 패드 부착 위치 LED 표시 및 교환용 패드 사용
- ▶ 모든 커넥터 연결방식 적용
- ▶ 일시정지 및 음량조절 기능
- ▶ 다국어 지원
- ▶ 교육에 편리한 전용 리모컨
- ▶ AHA '2015년 가이드라인' 적용 제품



누르고
Nurugo CPR 마네킹®

- ▶ 인공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인체에 가까운 2중 관절 목구조
- ▶ 심폐소생술 품질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 기능
- ▶ 가슴압박 깊이와 속도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
- ▶ 더 정확한 AED 패드 부착 기능



혁신! 고객만족이 시작이다.
Innovations Starts from Customers!



40년의 경험과 첨단 제조 기술!!

최상의 품질로 고객을 미소 짓게 합니다.



KNIT | WOVEN | JACKET | RAINCOAT 등 1일 10,000 PCS 이상 대량 생산시스템



군·경·단체 피복의 메카! 고품질 제품은 GNT부산의용촌과 함께 하십시오!!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89-7 89-7, Dukcheon-ro, Buk-gu, Busan, Korea
TEL/FAX : 051.331.2191~7 / 051.331.2190, +82.2.331.2191~7 / +82.51.331.2190

www.e-gnt.com